

KIND 방글라 협력센터 주간 건설·인프라 동향 보고(8.1)

1. 방글라데시 경제 동향

○ 방글라데시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

Source: <https://www.bb.org.bd/en/index.php/econdata/index>

구분	내용	비고
은행간 환율	109.00 Tk/USD (전주대비 0.48△)	'23.08.01. 기준
기준금리	4% 유지	'23.06월 기준
월평균 시중금리	6.06% (전월대비 0.03△)	'23.06월 기준

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아직 2023년 7월과 8월 금리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

○ 방글라데시 국채 금리 추이(현지화 10년물 8.505%)

▼ 8.505 -0.00 -0.00%

출처: <http://www.worldgovernmentbonds.com/bond-historical-data/bangladesh/10-years/>

Yield changed +0.0 bp during last week, +0.0 bp during last month, +19.0 bp during last year.

Current Yield is close to **1 year maximum value**

Period	Change	Min	Range	Max
1 Week	0.0 bp	8.505 % Jul 25, 2023	No change	8.505 % Aug 1, 2023
1 Month	0.0 bp	8.505 % Jul 1, 2023	No change	8.505 % Aug 1, 2023
6 Months	0.0 bp	8.450 % Feb 7, 2023		8.505 % Aug 1, 2023
1 Year	+19.0 bp	8.210 % Oct 16, 2022		8.510 % Jan 14, 2023

Current Yield: **8.505%**

Last update 1 Aug 2023 2:15 GMT+0

□ 방글라데시 국내 제조업 부문 세금수입 둔화

- 방현지 제조업 수입 감소, 방국내 세금 수입은 과거 평균 대비 10%저하
- 국가 세입 위원회(NBR)는 지난해 부가 가치세(VAT), 소득세, 관세 등으로 3조 3,100억 Tk의 세금 징수.

- 세무 당국은 FY22에서 목표인 3조 3,000억 Tk 대비 낮은 3조 1,000억 Tk 상당의 수익 징수.

□ 방글라데시, 아시아-태평양지역 국가중 가장 빠른 경제 성장 기록

- 방글라데시는 10년간 국내총생산(GDP) 복합 연간 성장률(CAGR) 기준,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.
- 방글라데시의 지난 10년, 5년, 3년간 CAGR은 각각 9.1%, 9.4%, 8.5%. 또한 방글라데시의 경제 규모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0번째로 크고, 세계에서 25번째로 큰 경제 규모.

2. 건설·인프라 시장 동향

□ CPA 베이 터미널 올해 착공 예정

- 치타공 항만 공사(CPA)는 차토그램 항구 베이 터미널 건설*이 올해 시작 될 것으로 예상. *베이 터미널 프로젝트에 따라 3개의 터미널이 건설될 것.
- 당초 독일 및 방글라데시 기업들은 2016년 GoB Base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나, 이후 ^방정부는 PPP 방식으로 변경.

□ 대부분의 철도 프로젝트 지연중

- 인프라 개발자금 확보 지연으로 인해 대부분의 철도 프로젝트가 지연 되고 시행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.
- 2018년에 시작된 Tk5,580 Crore의 보그라-시라즈간지 철도 프로젝트는 0.2%의 진도에 그침. 23FY 회계연도에 Tk440.50 크로어를 할당하며, 이 자금 조달 속도라면 프로젝트는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임.
- 추정 비용이 Tk3,506.75 Crore인 쿨나-다르샤나 복선 철도 프로젝트도 비슷한 상황. 2018년에 시작된 프로젝트는 24FY에 Tk109.3 Crore만 할당. 이 부진한 진행률로 126km의 철도 트랙을 완성하는 데는 32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.

□ 석탄 부족으로 인해 화력발전소 폐쇄

- 라팔 석탄 화력 발전소는 새벽 석탄 부족으로 인해 다시 가동 중단.
- 방글라데시-인도 전력회사(BIFPCL)에 따르면 620MW 용량의 첫 번째 장치는 재고가 충분하지 않아 가동 중단. PGCB 관계자는 14,200MW의 수요대비 부족한 12,993MW의 전력을 생산했다고 밝힘.
- 앞서 람팔 화력발전소는 지난해 12월 17일 가동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5차례 가동이 중단됐고, 터빈의 기술적 결함으로 지난 7월 16일 마지막 정전 발생.

□ 중국이 FS를 시작하면서 자무나 터널 프로젝트의 돌파구 마련

- 중국이 자무나 터널 사업에 대해 허난 통신 계획 설계사를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으로 선정하면서 자무나 터널 건설 프로젝트가 돌파구를 마련.
- 제안된 자무나 터널 프로젝트는 낙후된 13개의 북부 지역을 다카 및 기타 동부 지역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다카와 북부 지역 사이의 거리를 거의 80km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.

3. 재난상황 및 정치상황

□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^방정치 상황 변동성 확대

- 미 국무부 보고서(2023년 7월 27일 발간)에 따르면, 미국은 총선이 다가 오면서 방글라데시의 정치 상황 불안정에 대해 우려.
- 보고서는 "2023 투자 기후 성명: 방글라데시"는 "방글라데시는 역사적으로 온건하고 세속적이며 평화롭고 안정적이지만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 총선에 가까워지면서 정치와 안보 상황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."라고 밝힘.
- 또한, "셰이크 하시나 총리와 여당인 아와미 연맹은 사법 독립을 훼손하며 언론과 시민 사회의 자유를 위협하는 법안과 정책을 채택했다"고

덧붙임.

□ 경찰, AL(아와미 리그), BNP(방글라데시 국민당) 시위 예정

- 2023년 7월 29일 다카를 뒤흔들었던 것과 같은 또 다른 대혼란이 다시 예상되는 상황.
- 7월 29일 BNP-경찰 충돌 후 100명 이상의 체포
- 7월 29일 폭력으로 700명을 상대로 최소 13건의 사건 발생
- BNP, 7월 31일 시위, AL또한 농성 및 시위 예정
- BNP는 더 이상 데모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지 않을 것을 발표

□ 평화 집회에서 사망사건 발생

- 레자울(21세)은 금요일 "평화 집회"가 끝난 후 다카 골랍 샤 마자 지역에서 아와미 리그의 두 파벌 간의 충돌 중 사망.
- 또한 7월 28일 저녁에 열린 당 평화 집회에 참석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AL의 한 파벌이 다른 단체를 공격하여 보행자를 포함하여 5명 부상.